
『양화진의 진실 I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 규명』을 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는 2009년 9월 예장통합 총회에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총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대개 목사가 노회 탈퇴서를 제출하면 통합측 헌법시행 규칙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서노회는 저희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노회 탈퇴서를 기소조차 안 된 시점에 접수완료 했음에도 재판에 계류 중이라며 면직을 판결했습니다. 통합 총회는 이재철 목사님의 면직 사실을 20개 교단 총회장들에게 공문으로 보내며, 다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동봉했습니다. 통합 총회는 이 보고서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10년 7월 22일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고회에서 또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주년기념교회는 비로소 이 보고서가 단순한 의미의 유인물이 아님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의 보고회에서는 언더우드 4세인 피터 언더우드 씨가 공개적으로 양화진을 1985년 이전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5년에 당신의 부친인 원일한 장로님(언더우드 3세)께서 한경직 목사님과 ‘통모’하여 불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현재 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역사적 사건을 두 분의 사적인 일

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일 뿐 아니라 두 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했다고 혐의를 두는 것입니다.

1985년 이전의 양화진 관리주체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소유권자로 등재될 수 없는 선교사 신분의 소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화진은 지협적(地狹的)이고 탈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협적’이라 함은 연고기관이 없거나 자손이 한국에 없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탈법적’이라 함은 묘역관리를 명목으로 팔 수 없는 매장지를 선(先) 매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양화진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에 의해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을 관리하기 시작한 후, 선교사의 후손 한 분이 이곳에 매장되기를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매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양화진 묘원 행정관리부처의 그 누구도 문건으로 책임 있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군이 묻혀있는 묘역에 한 부인이 별세하자 가족들이 무덤을 쓰기 위해 예약매장지 매매 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막무가내로 여기 묻어야 되겠다고 하셨지만 해결해 드릴 수 없었고, 몰래 매장을 하였다가 결국 관할 경찰서의 입회하에 이장(移葬)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니, 양화진 묘원의 추가 매장의 가능여부는 저희 관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외국인도 국내법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씨는 100주년협의회의 권고나 지시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양화진의 사용권을 갖겠다는 것입니까?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고 정진경 목사님, 강병훈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김경래 장로님 등을 형사 고소하여 경찰서와 검찰에서 여러 시간이나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는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피터 언더우드 씨는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양화진과 아무 연관이 없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말합니다. 피터 언더우드 씨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유니온

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유니온교회가 왜 갑자기 100주년기념교회를 부정하고 아무 연고 없는 교회라 매도하는지, 유니온교회 지도부는 100주년기념교회가 당신들을 ‘쫓아 내려한다’, ‘쫓아냈다’, ‘선교사 묘를 이장하라고 했다’, ‘묘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등등의 거론조차 힘든 말을 하며 반인륜적인 교회로 폄훼하는지, 만약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만 목적된 건물이라면 마포구청의 행정명령을 100주년협의회가 통보했다고 나갈 수 있는지, 1986년부터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나가게 된 시점까지 100주년협의회의 헌신적인 보호와 일방적인 배려가 없었어도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100주년협의회 어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저들을 섬겼습니다.

현재 선교기념관은 처음 건축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화진의 법적 소유권자인 100주년협의회가 1층을 사무실로, 2층 대강당은 양화진 참배객들을 위한 안내와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역과 연관이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인 행사 및 예배장소로 활용되어 교계는 물론 역사적인 유적지의 기념관으로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화진문화원은 매주 목요일 평균 500여 명에게 국내 최고 강사진의 목요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장차 양화진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100주년기념교회 중, 고등학생들의 주일학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1985년 당시 한국교회의 모든 대의를 모아 결정한 대로 선교기념관의 역할은 확실히 진일보했습니다.

선교기념관의 사용은 마포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100주년기념교회는 물론 100주년협의회조차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100주년기념교회가 제안한 바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100주년기념교회 교육관을 예배처소로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100주년협의회 원로들과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등의 손에 기필코 수갑을 채우기 위해 각종 소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사과는 필요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피터 언더우드 씨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통합측의 교단 신문 <기독교공보>가 한경직 목사님의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힘쓰는 중입니다”라는 설교 한 구절을 근거로, “서울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 장소로 지어진 것으로 재확인됐다”는 보도기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유니온교회만을 위한 선교기념관으로 지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럼 ‘왜 건물 이름을 애초부터 유니온교회라고 칭하지 않았을까’라는 1차적인 질문조차 무시한 채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 어디를 찾아보아도 선교기념관을 지어 영구적으로 서울유니온교회에게 주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의 ‘보고서’가 공식 문건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실적·법률적·윤리적 정당성조차도 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공격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씨의 일방적 사실 왜곡과 그 왜곡을 확인 없이 확대유포하며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예장통합측을 보며 저희가 침묵함으로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양화진의 진실 I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100주년기념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 삼아 한국교계의 연합정신을 올곧게 지켜가겠습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섬기면서 한국교회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저희 100주년기념교회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상임위원장 윤 좌 원
운영위원장 정 한 조
공동대책위원장 정 철 길